

울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시대 열다

울산신항컨터미널 개장... 비전은 '국내 최고의 명품터미널'

우리나라 최대 수출전진기지인 울산항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04년 7월 착공 이후 5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5월 29일 준공, 오는 7월 15일 정식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Ulsan Newport Container Terminal; UNCT)은 2,000TEU급 3개 선석과 5,000TEU급 1개 선석을 갖춘 컨 전용터미널.

물론 그동안 울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용터미널이 아닌 일반부두에서였다. 다시 말해 이번 UNCT 개장으로 울산항은 제대로 된 컨 전용 터미널을 갖게 된 것이다.

5000TEU급 대형 컨선 입항도 가능

UNCT의 화물처리능력은 공식적으로 약 50~60만TEU. UNCT에 첫 선박이 입항하던 7월 1일 취임한 나승렬 동방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는 "실제 100만 TEU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초 UNCT는 2만톤급(2,000 TEU급) 4개 선석으로 개발되도록 설계됐었다. 그러나 선박 대형화 추세를 감안, 1개 선석은 대형선박 입항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바꿨다.

나승렬 대표이사는 "피터항 성격이 강한 울산항에 그렇게 큰 선석이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나 선박은 대형화되고 있으며 미래 울산항의 성



UNCT의 경쟁력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나승렬 동방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7월 1일 고려해운 컨테이너 선이 UNCT에 첫 접안, 하역작업이 이뤄졌다.

장을 감안, 원양선박 입항할 수 있는 시설 갖추기 위해 5만톤급(5,000TEU급) 선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5,000TEU급이 입항할 수 있을 만큼 수심도 충분히 깊다.

풍부한 자체 물동량 등 경쟁우위 요소 많아

UNCT에는 장점이 많다. 항만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야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컨테이너 부두에는 없는 냉동컨테이너 전용 적재시설, 위험물 컨테이너 전용 적재시설 등이 확보돼 있다. 냉동 컨테이너 장치장과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장은 각각 1,298TEU와 450TEU의 일시 장치 능력을 갖추고 있다.

UNCT가 갖는 지경학적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다. 울산지역 화물의 경우 UNCT를 이용할 경우 부산항이나 부산신항 이용시 발생하는 육상운송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울산기점 화물을 기준으로 할 때 차량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란 계산이 나와 있다. 대구 경북지역 화물의 경우도 부산항으로 가는 것보다 육상 운송거리가 30km 가량 단축된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물류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울 만 하다.

그동안 울산항에서는 12개 컨테이너 선사가 일본 16개항, 동남아 11개항, 중국 9개항 등 10개국 38개

항을 울산과 잇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동남아,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잇는 지역별 연계수송으로 아시아 전역에 대한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며 향후 중동, 지중해 직항 컨테이너 서비스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울산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컨테이너 물량이다. 울산항은 우리나라 산업수도라 일컬어지는 울산을 배후로 하고 있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선두에 있으며 울산항의 액체 화물 처리량은 1억3천만톤으로 세계 4위다. 세계 3대 액체화물 항만을 만든다는 것이 울산의 의지다.

자체 지역물량을 풍부하다는 것은 여타 신설 컨터미널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나승렬 대표이사는 "액체화물의 컨테이너화도 진전되고 있고 선박, 자동차 부품 등 컨테이너 물량이 많은 곳이 울산이다."고 설명했다.

최신의 맞춤형 항만하역 서비스 제공

UNCT의 비전은 '국내 최고의 명품 터미널'이 되는 것이다. 최신의 맞춤형 항만하역서비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실시간 정보조회 서비스, 충분한 야적장과 배후부지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명품 컨 전용 터미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